

1.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슬로시티란 지역주민들이 “작은 여유와 행복이 깃든 마을”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느린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이런 여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장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을 지켜나가는데 이 운동은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나 4H운동(두뇌 Head:知 · 마음 Heart:德 · 손Hand:勞 · 건강 Health:體)에 비유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구습과 오래된 것을 없애고 효율성을 통한 마을 경제 살리기 운동(잘살기)이었다면 슬로시티운동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적 특성(고유성)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였다면 슬로시티운동은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마을운동이나 슬로시티운동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마을(농어촌과 작은 도시)의 행복과 경제향상에 있다. 새마을운동의 노래가사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이지만 슬로시티운동은 “초가집도 보존하고 좁은 길은 더 예쁘게 만들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일지도 모르겠다.

2. 외국의 슬로시티는

슬로시티운동은 원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대도시 부근의 작은 마을 그레베인끼안티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인구감소, 소득감소,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마을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시장은 인근의 대도시와는 정반대의 구상을 하자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즉 대규모 건설이나 자연훼손은 자제하면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고유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상가의 자동차진입 방지, 전통식품의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기, 유기농식자재 사용하기, 마을의 전통문화 살리기, 자판기와 인스턴트식품 없애기 등에 관한 주민자치규약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을의 특산품이 유명해지고, 지역 상가는 활성화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조금씩 늘기 시작해 마을 내 민박과 식당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과 투자 자치규약으로 금했으며 대형마트도 입점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철학에 동참하고 연맹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연맹체에 가입한 도시들은 슬로시티의 달팽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마을, 행복한 자립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관광객의 증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특산품의 가치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입도시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는 2007년 12월자로 신안, 완도, 장흥, 담양이 가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하동군과 예산군이 가입되었다.